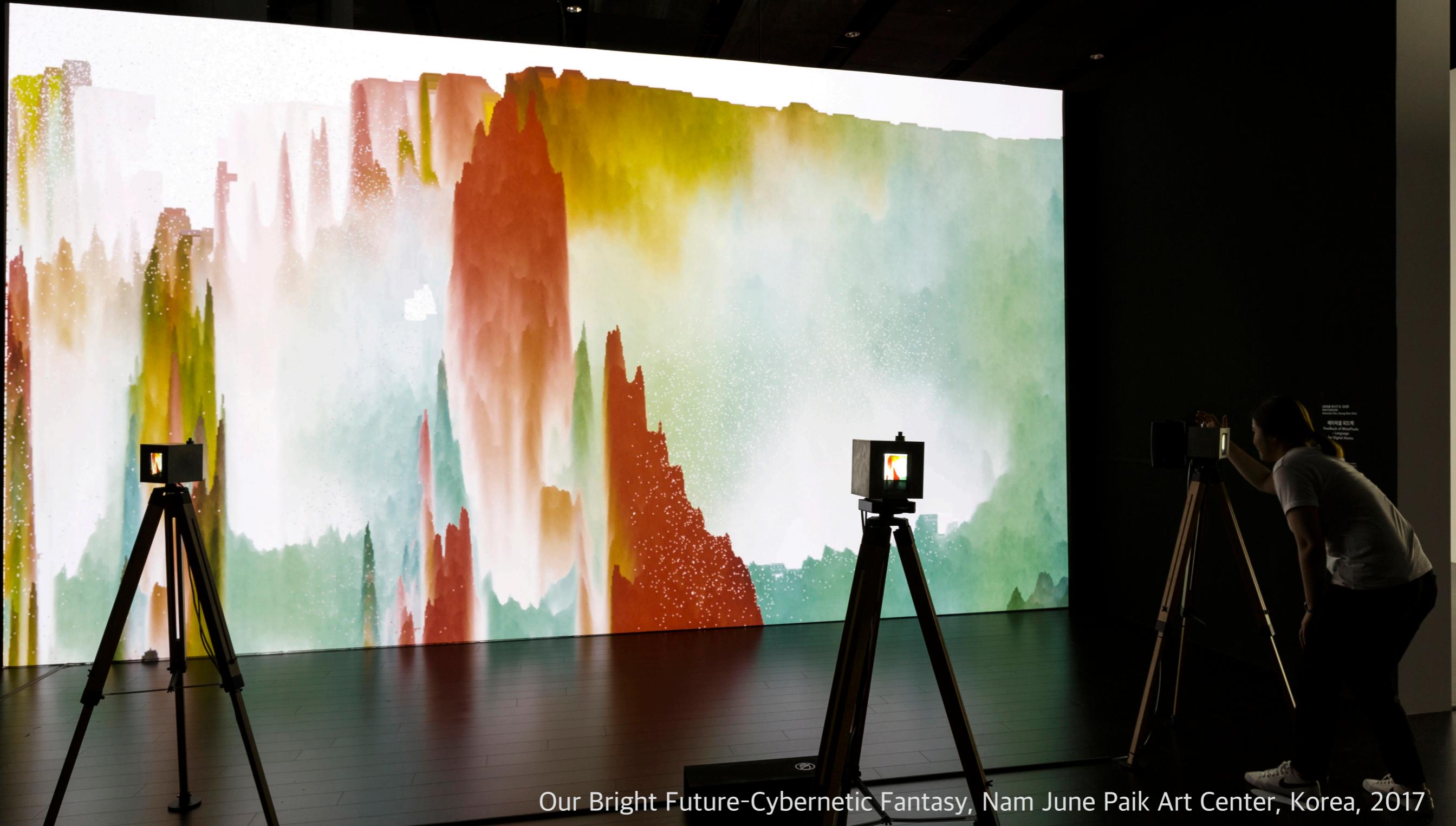


Feedback of MetaPixels

: Language for Digital Atom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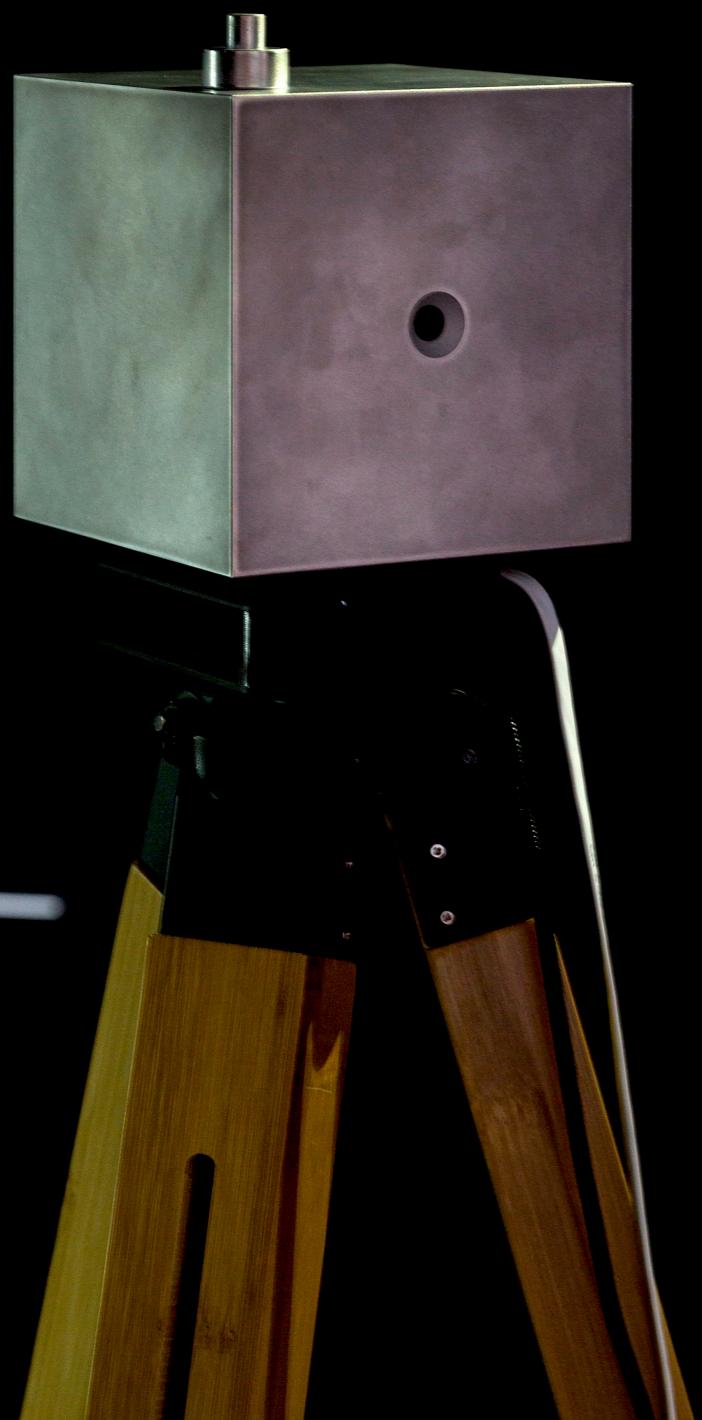
PROTOrOOM
ModularCulture & Tech

후니다 킴 / 김 승 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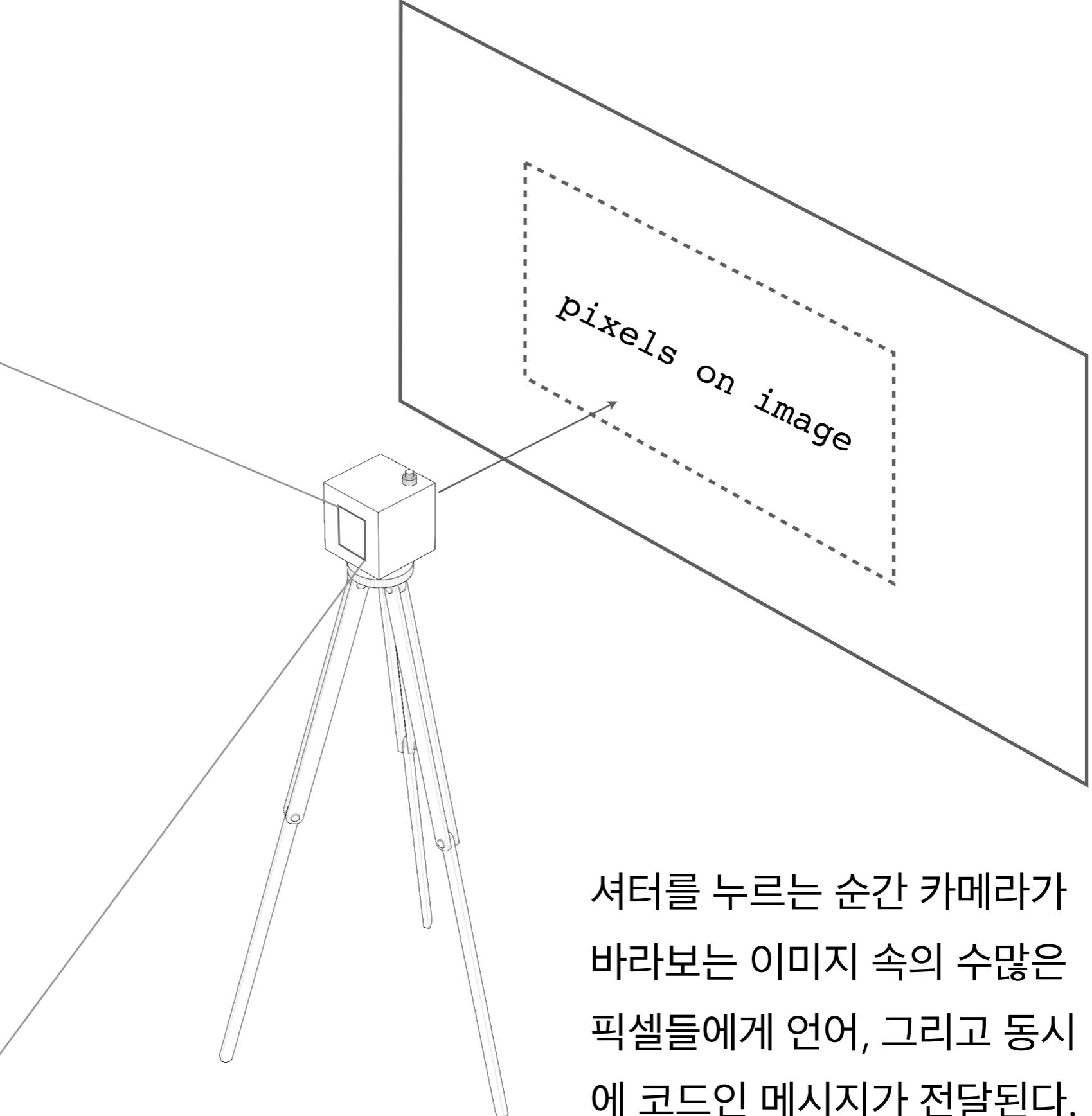
Our Bright Future-Cybernetic Fantasy, Nam June Paik Art Center, Korea, 2017

'Feedback of MetaPixels' 는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을 낯설게 건드리는 카메라를 만들고, 이들과 디지털 이미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을 보여주는 설치 작업이다.



고해상도의 기술은 픽셀을 디지털 스크린의 수
면 아래로 숨겨버렸다. 픽셀은 실재하지만 더
이상 감각할 수 없는 디지털의 원자적 존재이
다. 메타픽셀 카메라는 픽셀을 커뮤니케이션
이 가능한 대상(Object)으로 바라보고 메시지
를 보낸다. 메시지를 통해 각각의 픽셀들은 행
위자로서 스크린 위에 다시 존재하게된다.

- 픽셀의
- 붉음은()
 - 강함을()
 - 흘러내린다()
(나의.붉은만큼)
 - 아니면()
 - 흘어진다()



셔터를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
바라보는 이미지 속의 수많은
픽셀들에게 언어, 그리고 동시
에 코드인 메시지가 전달된다.



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로서만 존재하던 각각의 픽셀은 메시지를 받아 행동할 수 있는 개별 존재자가 되고, 픽셀의 행위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는 다시 카메라의 입력으로 되먹임된다. 이를 통해 픽셀들은 메타픽셀로서 피드백된다.

